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융복합 연구

박순희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reign Students

Sun-Hee Park
Professor, College of Basic & General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IBM SPSS v23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교류와 학업 및 문화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으며, 유학생 전문상담인력을 대학 내에 상주시켜 진로 및 학업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일반적 특성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cultural stress, self-efficacy, and career-preparation behavior differed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and whether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affect career-preparation behavior. To this end, a survey of 231 foreign students was conducted an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IBM SPSS v23 statistics program. According to the study,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differed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have been shown to affect career-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curriculums, comparisons and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to help them exchange culture and adapt their studi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professional counseling staff residing in universities to conduct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Key Words :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ener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s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Park(sunny681127@hanmail.net)

Received April 2,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May 3,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최근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3년 연속 10% 이상 증가해 14만 2205명이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국내 인적 자원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외교류 협약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과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을 통해 국내 학생들은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깊이 있게 알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1,2].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한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장기체류자로 변화하여 향후 잠재적 이민자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3].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확대 개편하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도입하여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한국유학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유학생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 영어)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에서 학업은 물론 문화적응 및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많은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4-7].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습과 교육 체계에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 직업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기간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 내에 외국인지원센터 및 취업진로센터 등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유학생들의 학교 및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며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찾는데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아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른 언어와 타인과의 인간관계, 타문화에 대한 적응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8,9]. 이처럼 한국은 유학생 유입의 역사가 짧고 학위취득 후 거취양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특성 등의 요인을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10-14]. 특히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주배경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정체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 관계를 검증으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15,16].

또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및 진로 적응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사람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지각된 신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재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와 B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으로, 2018년 7월 부터 12월까지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일관)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3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은 98명(42.4%), 여학생은 133명(57.6%)이었다. 국적은 베트남 196명(84.8%), 중국 35명(15.2%)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6개월-2년 미만 10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2년-5년 미만 74명(32.1%), 6개월 미만 49명(21.2%)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어 수준은 보통 154명(66.7%), 좋음 70명(30.3%), 나쁨 7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나라는 한국 137명(59.3%), 본국 94명(40.7%)로 나타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2.8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i와 Asrabadi가 개발한 ASIS(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 척도를 Lee[20]과 Kim[21]가 수정한 영어와 한국어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중국어, 베트남어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문화적 충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고향이 그리워 힘들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나에게 대한 미움을 표현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지각된 차별감 .883, 향수병 .748, 지각된 미워함 .711, 두려움 .786, 문화적 충격 .623으로 나타났다.

Table 1. A demographic variable (N=231)

	Variable	N	%
Gender	Male	98	42.4
	Female	133	57.6
Grade	first	20	8.7
	second	22	9.5
	third	20	8.7
	fourth	40	17.3
	remark	129	55.8
Nationality	Vietnam	196	84.8
	China	35	15.2
Period of stay	less than six months	49	21.2
	less than two years	108	46.8
	less than five years	74	32.1
Korean level	good	70	30.3
	better	154	66.7
	poor	7	3.0
Country that wants to work	Korea	137	59.3
	Home country	94	40.7
Korean Language Rating (Topic)	class 1-2	64	27.7
	class 3-4	45	19.5
	class 5-6	11	4.7
	no	111	48.1
Age (M/SD)		22.08/2.13	

2.2.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Park[22]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Hernandez의 효능감 척도, 그리고 Sherer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11이다.

2.2.3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16문항의 진로준비행동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도구를 Kim[23]이 최근의 인터넷 진로정보 사이트 및 대학교 내에 학생상담센터등이 활성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18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v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변인의 신뢰도와 정규성을 확인하고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유능감, 진로준비행동

3.1.1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2 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t=2.121, p<0.5$). 남학생 21.69점, 여학생 20.55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Culture adaptat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Categories	Mean±SD	t (p)
Culture adaptation stress	Male	60.27±14.14	-1.83 (.069)
	Female	63.42±14.98	
Self-efficacy	Male	21.69±5.3503	2.121 (.035)*
	Female	20.55±4.4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le	47.72±14.14	1.83 (.069)
	Female	44.57±11.98	

* $p<0.05$ ** $p<0.01$, *** $p<0.001$

3.1.2 학년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조사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학년 65.45, 4학년

50.15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결과 1학년이 4학년에 보다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47, p<0.01$). 자기유능감은 4학년이 2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이 20.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3.038, p<0.5$).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Level of Culture adaptat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rade

Variable	Mean±SD	F(p)
Culture adaptation stress	first	65.45±21.09
	second	54.13±17.82
	third	63.85±15.92
	fourth	50.15±13.89
Self-efficacy	first	20.90±4.24
	second	22.22±4.49
	third	22.05±2.37
	fourth	23.72±3.1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rst	42.35±11.34
	second	47.09±13.52
	third	46.20±8.38
	fourth	49.97±11.94

* $p<0.05$ ** $p<0.01$, *** $p<0.001$

3.1.3 체류기간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조사대상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4.384, p<0.001$). Table 4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Scheffe 사후검증결과에서도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2년-5년미만이 2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2년미만 20.83, 6개월미만 18.9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Level of Culture adaptat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period of stay

Variable	Mean±SD	F(p)
Culture adaptation stress	less than six months	50.83±15.92
	less than two years	54.74±16.41
	less than five years	56.32±17.98
Self-efficacy	less than six months	18.95±4.39
	less than two years	20.83±3.72
	less than five years	22.71±4.0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ss than six months	47.48±14.38
	less than two years	44.70±12.88
	less than five years	46.62±12.21

* $p<0.05$ ** $p<0.01$, *** $p<0.001$

3.1.4 한국어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조사대상자의 한국어수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160, $p<0.001$). Table 5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한국어수준이 상인 집단이 2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 21.84, 하 18.95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한국어수준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Level of Culture adaptat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Korean level

Variable		Mean±SD	F(p)
Culture adaptation stress	poor	56.41±16.17	2.046 (.132)
	better	53.09±16.71	
	good	63.71±24.35	
Self-efficacy	poor	18.95±12.70	16.160 (.000)***
	fair	21.84±13.16	
	good	24.14±7.8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or	43.07±4.20	2.661 (.072)
	fair	46.99±3.68	
	good	50.42±2.11	

$\rho<0.05$ ** $\rho<0.01$, *** $\rho<0.001$

3.1.5 취업희망나라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조사대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나라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t=-2.583, $p<0.5$). 한국 52.08점, 본국 58.02로 한국보다 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Level of Culture adaptat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a country that wants to work

Variable		Mean±SD	t(p)
Culture adaptation stress	Korea	52.03±17.57	-2.583 (.010)*
	Home country	58.02±15.41	
Self-efficacy	Korea	20.91±3.95	-.937 (.332)
	Home country	21.47±4.3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45.66±1.19	-.781 (.436)
	Home country	47.01±1.24	

$\rho<0.05$ ** $\rho<0.01$, *** $\rho<0.001$

3.2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 VIF, Durbin-Watson값 등을 살펴보았다. 변인들의 공차(Tolerance)값은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17 ~ 12.01로 10보다 작았고, Durbin-Watson값이 2.078로 나타나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차별감($\beta = -.506, \rho<.05$), 지각된 미우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8, \rho<.05$). 또 자기효능감($\beta = .208, \rho<.05$)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학력($\beta = .208, \rho<.01$)과 성별($\beta = .251, \rho<.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β	t	sig.	
Gender(Male=1)	.251	2.132	.036*	
Grade	.406	3.127	.002**	
Korean level	.088	.879	.382	
Period of stay	-.101	-.932	.354	
Country that wants to work	-.001	-.008	.994	
nationality	.203	1.539	.128	
Culture adaptation stress	discriminatory sense	-.506	-2.162	.033*
	Nostalgia	.109	.702	.485
	perceived hatred	.318	2.056	.043*
	fear	.345	1.615	.110
	cultural shock	.118	.653	.516
Self-efficacy	.208	2.041	.044*	

R²= .288 Adjusted R²= .189 F= 2.903** Durbin-Watson=2.076

$\rho<0.05$ ** $\rho<0.01$, *** $\rho<0.001$

4.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 따라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였다. 또 체류기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였고, 한국어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였으며, 취업을 희망나라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이 차이를 보인다는 Yu[24]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보다 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 잔류하여 취업할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귀국을 원하는 학생들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한국의 문화를 섭렵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차별감, 지각된 미워함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차별감 및 미워함 등을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9,24,25]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19, 25]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이나 학년 등 인구학적 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만큼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진로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진로상담 과정에서 행동적 측면의 변화에만 치중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나 학년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특성을 강화하는 외국인 유학생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진로 준비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 및 진로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교내 외국인 유학생

을 전담하는 상담인력이 상주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및 학업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일반학생들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아우르는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행사들을 통해 유학생들의 생활 및 문화적응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 및 문화적응, 취업적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유학생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과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한계점은 베트남 및 중국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진로변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그 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H. No. (2003).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ies of Universities by Country and Region in the Promotion of Foreign Student.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 J. S. Baik. (2000).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family management society*, 18, 127-137.
- [3] J. E. Kim. (2009).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daptive Program Effectiveness of Foreign Students*. Master's thesis of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won.
- [4] Y. L. Shin. (2014). *Effects of Linguistic Competency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justment Stres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5] H. H. Kim. (2013).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College-life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 [6] C. C. Lee, I. S. Oh & S. Y. Lee. (2016).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Adapt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1), 101-120.
- [7] S. Y. Yoon. (2015). Moderating Effect of Social

-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Focused on Foreign Students Majoring Tourism at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5(2), 177-197.
- [8] T. S Lu. (2016). *A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tional awareness*. Doctoral dissertation at Yeungnam University, Daegu.
- [9] J. H. Yu, J. H. Lee & S. H. Park.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511-520.
- [10] J. W. Yu. (2013).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4, 245-260.
- [11] J. H. Lee. (2011). Determinant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183-194.
- [12] E. S. Cho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3] K. G. Rice, D. P. Fitz Gerald, T. J. Whaley & C. L. Gibbs.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l,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4.
- [14] G. S. Kim & J. I. Hwang.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Chin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9), 1-25.
- [15] K. S. Jun. (2017). A Study on the Career Preparation of Immigrant Youths in a Multicultural Background and Plans of their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GRI Review*, 19(1), 441-473.
- [16] D. Oyunchimeg. (2008).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Family Function on Career Identity among Mongolian Migration Background*.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7] A. K. Chung, J. S. Kim & J. H. Kim. (2013).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6), 11-18.
- [18] J. Lee & S. J. Yune. (2018).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in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681-697.
- [19] H. J. Se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1), 43-64.
- [20] S. J. Lee. (1995).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 [21] H. H. Kim. (2013).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College-life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 [22] H. S. Park.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university, Seoul.
- [23] H. G. Kim. (2003). *(The) Concern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Year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partment of Career & Vocation Counseling Jeonju University
- [24] J. H. Yu.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haracter strengths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at Dongshin University, Naju.
- [25] Y. O. Park.(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by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Career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3), 81-107.

박 순 희(Park, Sun Hee)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 외국인유학생, 다문화, 가족상담 및 복지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